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의 만족도 및 재신청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 : 제주특별자치도 양돈농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Factors of Satisfaction and Re-application Intention for Agricultural Subsidies Project : Focusing on the Recognition of the Pig Farms in Jeju

고권진*, 김경범**

동아축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및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Gweon-Jin Ko(kgi0932@hanmail.net)*, Kyung-Bum Kim(saint@jejunu.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에 관한 정보제공 및 투명성 등과 같은 사업 선정절차, 구비서류 및 구비조건 등과 같은 사업신청조건이 보조금 지원정책의 만족도와 향후 재신청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금 지원사업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사업신청조건 완화보다는 사업선정절차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보조금 지원사업에 의한 소득증대 등의 효과를 통한 보조금 재신청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신청조건 완화보다는 사업선정절차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절차에 대한 만족도 향상 노력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만족도 향상뿐만 아니라 재신청 효과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의견반영 등 사업선정절차 만족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농업보조금 | 사업선정절차 | 사업신청조건 | 만족도 | 재신청의사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roject selection procedures such as information provision and transparency and project application conditions such as required documents and conditions on the satisfaction of agricultural subsidy support policy and re-application intention to support pig farmers in Jeju.

The results of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Need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the business selection procedure rather than to relax the business application condi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the subsidy support business.

Second, Need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the business selection procedure rather than to relax the business application conditions in order to increase the subsidy re-application intention through the income increase effect by the subsidy support project. It is shown that the efforts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the selection process can improve the satisfaction of the subsidy support project as well as re-application intention at the same t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cus on improving the satisfaction of the project selection process, such as providing information and reflecting opinions on the subsidy project.

■ keyword : | Agricultural Subsidies | Project Selection Procedure | Satisfaction | Re-application Intention |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을 밝혀둡니다.

접수일자 : 2016년 11월 17일

심사완료일 : 2016년 12월 05일

수정일자 : 2016년 12월 05일

교신저자 : 김경범, e-mail : saint@jejunu.ac.kr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농촌 및 농가의 현실은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경영비 상승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등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으로 향후 우리나라 농업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농업부분의 하나로 양돈산업은 지금까지 우리의 식량자원으로써 양질의 단백질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농업분야에서 미곡 다음으로 많은 식량자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리고 양돈산업은 축산분야에서는 가장 큰 생산규모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가격 상승,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정책의 변화에 따른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잦은 소모성 질병으로 인한 폐사율 증가 등으로 농가의 생산비용 증가와 함께 가격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1].

2002년과 2007년에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타결, 그리고 2014년에는 한중자유무역협정(FTA)까지 타결되었다. 이로 인한, 축산시장의 개방, 즉 국내산 돼지고기보다 저렴한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의 수입으로 양돈산업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 양돈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환경의 변화와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양돈시설의 현대화와 품질의 고급화 등 다양한 정부의 지원이 진행되어 왔다. 이처럼 정부는 농축산농가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농축산보조금 정책을 활용하고 있는데, 농축산보조금은 농축산산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고, 생산농가의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2].

세계 각국에서 농축산을 위한 보조금 지원정책은 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쟁력 제고와 자국의 농축산 유지, 그리고 농가의 실질소득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농가에게도 필요한 지원정책 중의 하나이지만, 아직까지 농축산 보조

금 지원정책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지원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 수요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견 반영이 미진한 실정이며, 게다가 보조금 지원정책들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일괄처리 또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농가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불필요한 절차와 조건 등도 존재해 왔다. 따라서 향후 보조금 지원정책은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조건, 그리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된 지원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의 양돈농가에 대한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사업선정 투명성 등의 선정절차, 구비서류 및 구비조건 등 사업신청조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보조금 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재신청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농업보조금 지원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연구방법은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여 보조금 사업에 대한 태도, 보조금 사업선정조건 등의 적정성, 만족도의 개념과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의 개념간의 관계를 근거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한다. 작성된 설문지는 교육된 조사원들이 일대일 면접조사를 수행하며, 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만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위하여 연구모형의 단일차원성을 저해하는 항목을 제거하는 등의 변수 정제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2단계로 수행되는데, 우선 제1단계로 SPSS 19.0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며, 그 다음은 1단계 변수정제과정을 거친 변수를 대상, 즉 단일차원성이 검증된 변수들만을 대상으로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18.0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변수정제 결과를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주관적 규범,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효과로써 보조금 재신청 간의 관계를 설정한 제안모형을 설정한다. 그리고 제안모형에 대한 수정 절차를 수행한 후에 최적모형을 선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구가설을 검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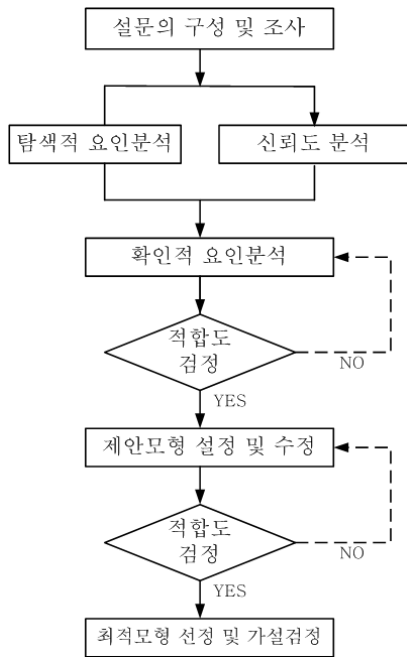


그림 1. 연구흐름도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농업보조금의 의미

농업보조금(agricultural subsidy)은 일반적인 보조금(subsidy) 중에서 농업분야에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일반보조금과 농업보조금에 관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지 않고, 연구자와 국가별로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WTO에서 바라보는 농업보조금은 개별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입뿐만 아니라 전체 농업생산과 농업발전을 위해 취해지는 모든 형태의 국내정책을 농업보조정책으로 보고 있으며, 농업보조정책에 소요된 비용까지도 농업보조금에 포함하고 있다[3].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농업보조금(agricultural subsidy)의 의미는 정부에 의해 농업분야에 투입되는 각종 정책지원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개별 농가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영농조합이나 농수축산물을 생산하는 기업 등 농업에 대해 이루어지는 모든 정부지원이 농업보조금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폭넓은 의미에서 농업보조금을 모두

다루기보다는 범위를 보다 축소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그 외 공공기관이 농수축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보조금 지원정책을 의미한다.

2. 합리적 행동이론

Ajzen & Fishbein(1980)의 합리적 행동이론은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며,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하고 있는 모형이다. 합리적 행동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특정 행동은 행동의도에 의해서 결정되며, 행동의도는 개인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의해서 결정된다[4]. 즉, 인간의 행동은 개인이 갖고 있는 특정 사안에 대한 태도 또는 정책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에 대한 주관적인 절차 또는 규정 등의 주관적 규범을 갖고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이 갖고 있는 특정 사안 또는 정책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통하여 행동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가정하기 보다는 행동의도라는 매개변수를 통하여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합리적 행동이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합리적 행동이론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기대효용(Expected Utility)원리에 기초한 선택과 정치·경제학적 차원의 의사결정이론이라 할 수 있는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가들은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내용과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규범으로써 지원절차의 복잡성 여부와 농가에게 주어지는 득실의 인식여부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으로 연결될 것이며, 만족 시에는 향후 재신청 행동 가능성이 증대할 것이지만, 불만족할 경우에는 재신청 행동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합리적 행동이론은 인간이 어떤 행동의 수행여부를 결정할 때 행동의 결과가 자신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지를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한다[5]. 즉 행동의 결과가 자신에게 편익을 가져온다고 생각이 되면 그 행동을 다시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양돈농가의 행동에 대해 다양한 연구관점 중에서 양돈농가의 다양한 이해 관계적 입장에서 양돈농가는 자신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는 것을 근거로 한다. 즉, 양돈농가는 농업보조금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족이라고 느끼는 행동의도가 재신청이라는 행동 결정시에 양돈농가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행동이론 관점에서 결정할 것을 가정한다.

3.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모든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러한 요인에 관하여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Young(1979)은 개인의 이익, 유인, 사회적 압력, 강제적 법집행 등과 같은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6], Coombs(1980)는 정책에 대한 신뢰 또는 불신[7], Anderson(1984)은 정책의 정당성, 개인의 이익 등으로 분류하였다[8].

이시원과 하상근(2002)은 국민연금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국민연금정책의 집행에 악영향을 미치는 반행동모형을 이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정책에 대한 태도 요인으로 정책의 소망성, 적정성 등으로 분류하고, 정책집행기관 요인으로 신뢰성과 정통성, 정책대상집단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배경요인, 심리적 요인, 능력요인 등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9].

정정길 외(2006)는 원활한 정책집행을 위하여 정책의 내용과 관련된 요인으로 소망성, 명확성과 일관성을 제시하였고,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과 관련된 요인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성 등을 제시하였다[10]. 그리고 하상근(2010)은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정책집행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1].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하여 정책집행기관에 대한 신뢰, 즉, 정책집행을 위한 정책집행기관의 농업보조금 정책집행에 있어서 보조금제도의 운영을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조금 정책의 내용 및 선정에 관한 태도, 정책집행에 대한 주관적 규범으로써 보조금 제도 운영에 대해 주관적인 느낌, 그리고 보조금 집행에 따른 만족도, 그리고 보조금 집행에 따른 효과로써 향후 재신청 등으로 요인들을 구성하였다.

표 1. 영향요인

요인	상위변수	하위변수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의 선정절차 만족도	① 보조금 사업계획 등 정보제공 ② 보조금 사업에 농가 의견 반영 ③ 보조금 선정과정의 적정성 ④ 보조금 선정과정의 투명성 ⑤ 보조금 신속집행(지급)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주관적 규범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청조건 만족도	① 보조금 사업 신청 조건 ② 보조금 사업 신청 구비서류 조건 ③ 보조금 사업 신청 절차의 편의성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의 만족도	① 보조금 지원사업 만족도 ② 보조금 지원규모 만족도

4. 선행연구 및 차별성

4.1 선행연구

최근 선진국의 농업정책은 지속가능성을 핵심가치로 부각시키고 있고, 이에 맞추어서 농가의 소득안정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별 예산 여건상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비중을 낮추고, 농정예산 및 농업소득 중에서 농업직불금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12].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내용과 절차, 그리고 만족도와 효과와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들을 보면, 우선 농업보조금의 효율성 측면에서 김용택(1997)은 농업보조금 효과를 분석하는 방식이 전통적으로 보조하는 방식 자체가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보조에 관련된 집단의 이해가 변화함에 따라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하였고,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전통적 방식은 보조금이 정치적으로 결정될 뿐만 아니라 관료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치적 과정을 내생화시키고 효과분석에 있어서 공공선택론 방식의 적용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13].

김태이 외(2012)는 공적보조금이 농가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소득불평등 정도를 분석하였는데, 공적보조금을 제외한 농가소득의 지니계수가 공적보조금을 포함한 농가소득의 지니계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적보조금이 농가소득의 불평등정도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14].

박성재 외(2011)는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원자의 정부 의존적 경향 심화로 농업 자생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고, 직접 지불 보조금이 확대되고 있지만, 논과 쌀에 집중되어 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FTA 대책사업의 경우 보조비중이 높고, 개별 경영체 지원이 많아 정부의존과 과수요 유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예산·기금 집행 및 관리체계의 비효율적인 측면이 존재하며, 정부 중심의 투자로 인하여 외부 자본이 농업부문으로 진출입을 제한하는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하였다[3].

그러나 농업보조금 정책의 집행 및 제도적 측면에서 다소 문제점은 있지만, 농업보조금의 당위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

한원구 외(2007)는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평가지표와 평가지표 상호 관계를 고려한 정책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농업보조금 정책설계의 적합성, 정책집행의 효율성, 그리고 정책결과로써 수혜자의 만족도, 그리고 종속변수로 생산성 증대 등을 정책의 효과로 선정하고 평가하였다[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정책의 내용, 절차, 만족도, 그리고 보조금 지원정책의 효과로써 소득증대 등을 통한 재신청을 사용한다.

4.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농업보조금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농업직불금 제도와 관련한 주제들이 대부분이고 보조금이 지방재정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논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농업보조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관련하여 직불금 지급을 통한 소득보전 형식 이외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 다양한 보조금지원 사업들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단순히 농업직불금 제도와 관련한 연구의 진행으로는 향후 농업보조금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설정엔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보조금과 관련한 지원정책의 효

과에 대하여 수혜자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업내용과 수혜자 의견반영 등의 사업선정절차, 구비서류와 조건 등의 사업신청조건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들을 하고 있는지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문제를 제주특별자치도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연구들과 추가적인 차별성이 있다.

첫째, 보조금 지원정책의 내용, 보조금 지원정책의 선정을 위한 구비조건과 같은 주관적 규범 변수를 포함한 영향변수 및 매개변수인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소득증대 등으로 인한 효과로써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재신청의사에 미치는 영향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원인변수, 매개변수 및 결과변수를 통합한 과정모형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다.

둘째, 분석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관련 연구들과 달리 정책수혜집단의 효과로써 보조금 지원사업 재신청에 미치는 영향변수, 매개변수, 그리고 결과 변수들 간의 인과구조와 경로를 밝히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EM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활용하여 보조금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기존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III.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제주지역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사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의견반영, 처리의 공정성, 신속 집행 등과 같은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태도, 구비서류 및 구비조건, 신청조건 등 사업수행을 위한 조건에 대한 주관적 규범을 측정한다. 이들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향후 재신청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사업 내용 등 정책에 대한 태도와 신청조건에 대한 주관적 규범을

독립변수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보조금 지원사업의 효과 측정을 위한 향후 재신청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독립변수는 보조금지원의 내용(사업내용 및 사업계획고지 등 정보제공, 수혜자 의사반영여부, 업무처리 공정성, 신속한 집행), 보조금제도 운영적인 측면(신청절차 편의성, 구비서류 간소화, 이행조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매개변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종속변수는 보조금사업의 효과로 소득증대 및 보조금 재신청 등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설문조사의 항목은 보조금 사업에 대한 농가의 태도와 보조금 사업조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 그리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설문항목은 보조금사업에 대한 태도, 사업 신청조건, 전반적인 만족도, 그리고 사업 효과에 대하여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여기서 농업보조금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산출량, 생산 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보조금이 농민의 소득변화와 생산량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가들의 실질소득 변화를 계속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의 소득증대 및 소득증대 기여에 따른 보조금 재신청 의사 여부로 측정하고자 한다.

표 2. 요인 및 측정변수

요인	변수	문항
사업 선정 절차	정보제공	보조금 사업계획에 대하여 잘 알려준다.
	의견반영	대상자(본인) 의견을 보조금 지원사업 내용에 잘 반영한다.
	업무처리 투명성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한다.
	신속한 집행	보조금을 신속하게 집행한다.
	운영과정 만족도	전반적인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과정에 대해서 만족한다.
사업 신청 조건	구비서류 적정성	보조금 지원사업 구비서류가 적정하다.
	사업이행조건 적정성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이행조건은 적정하다.
	사업신청 절차 편의성	전반적인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절차는 적정하다.
사업 만족도	내용 만족도	보조금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
	규모 만족도	보조금 지원규모에 대해 만족한다.

재신청	지속 필요성	보조금 지원사업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소득증대 기여	보조금 지원사업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다.
	재신청	향후에도 보조금 지원사업에 신청할 것이다.

합리적 행동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그리고 종속변수 간의 관계의 인과관계를 표현한 다음 [그림 2] 연구모형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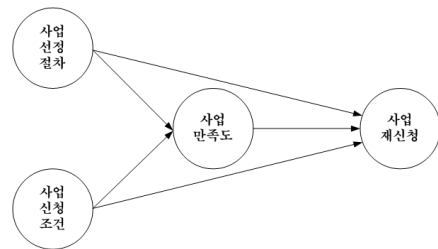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2. 표본크기 산정

2014년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양돈 사육농가 현황을 보면, 700두 미만 양돈농가는 49개소(16.1%), 700~1,000두 규모의 농가는 50개소(16.4%) 1,000~2,000두 미만 농가는 96개소(31.6%), 그리고 2,000두 이상 농가는 109개소(35.8%)이다. 구체적인 규모별 양돈농가 현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규모별 양돈농가 현황

계	700두 미만	1,000두 미만	2,000두 미만	2,000두 이상
304농가	49농가	50농가	96농가	109농가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재신청 의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2014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양돈을 사육하고 있는 304 농가를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이들 모집단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모집단의 크기가 주어졌을 경우, 표본의 크기는 다음의 공식을 중심으로 계산할 수 있다[16].

$$S = \frac{Z^2 NP(1-P)}{d^2(N-1) + Z^2 P(1-P)}$$

여기에서 S : 표본의 크기

N : 모집단의 크기

P : 응답에서 “예”와 “아니오”라는 대답이 일어날 확률 0.5

d : 허용오차 0.05

Z^2 : 유의수준 5%에서 Z^2 의 값 3.841

따라서 804농가를 모집단으로 하여, 위의 공식을 적용하여 표본의 크기를 계산하였다.

$$S = \frac{Z^2 NP(1-P)}{d^2(N-1) + Z^2 P(1-P)} = 169.9 \div 170\text{명}$$

위의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된 표본의 크기는 반올림하여 170명으로 산출되었다. 적정 표본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 170명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였고, 그 중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유효 표본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체 양돈농가 304 가구의 3분의 1 이상을 최소 유효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우선 모집단 304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80 가구의 설문을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설문 6부를 제외한 174부를 유효한 표본을 선정하였고, 그 중에서 보조금 사용경험이 없는 63가구를 제외한 보조금 사용 경험이 있는 농가 111가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IV. 실증분석 및 가설검증

1. 표본의 특성

표본의 전체 유효응답 농가 수는 111가구이며, 이들 농가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사항인 성별, 연령, 학력, 경력 등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분포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102명(91.9%), 9명(8.1%)으로 남성이 대부분이었으며,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12명(10.8%), 40대가 34명(30.6%), 50대가 41명(36.9%), 그리고 60대 이상이 24명(21.6%)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 39명(35.1%), 고졸 53명(47.7%), 중졸 11명

(9.9%), 국졸 8명(7.2%)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별은 5년 미만 10명(9.0%), 10년 미만 14명(12.6%), 15년 미만 17명(15.3%), 20년 미만 39명(35.1%), 그리고 20년 이상 31명(27.9%)으로 나타났다.

표 4. 표본의 분포

	표본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02	91.9
	여성	9	8.1
연령	30대	12	10.8
	40대	34	30.6
	50대	41	36.9
	60대 이상	24	21.6
학력	국졸	8	7.2
	중졸	11	9.9
	고졸	53	47.7
	대졸	39	35.1
경력	5년 미만	10	9.0
	5~10년	14	12.6
	10~15년	17	15.3
	15~20년	39	35.1
	20년 이상	31	27.9

2.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해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채택하였다.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요인은 4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는데, 사업효과(재신청)가 3문항, 사업선정절차가 5문항, 사업신청조건 3문항, 만족도 2문항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분석에 사용한 13개 모든 변수의 요인적재치가 0.4보다 높게 나타나서 적절하게 분류되었다.

다른 타당성검증 방법으로 Kaiser-Meyer-Olkin scale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0.737이며, 이 값이 적으면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좋지 못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KMO 값이 0.70 이상이면 적당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수치로 판단한다[17].

Bartlett's test of sphericity's signification 검정은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카이제

값이 521.863(***p<.001)이며 유의확률은 0.00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에 대하여 문항 일치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내적일치도 방법을 이용한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 값인 크론바하 알파 값을 살펴보면 사업효과가 0.847, 사업선정절차가 0.794, 사업신청조건이 0.721, 그리고 사업만족도 0.695로 나타났다. 참고로 크론바하 알파값을 해석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0.6이상이면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본다[17].

이와 같이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은 비교적 높은 내적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써 변수들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가 모두 확보되었다.

표 5. 요인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변수	사업효과	사업선정절차	사업신청조건	사업만족도	크론바하알파
사업효과	소득증대기여	.891	-	-	-	0.847
	보조금 필요	.827	-	-	-	
	재신청	.826	-	-	-	
사업선정절차	선정과정	-	.429	-	-	0.794
	신속처리	-	.780	-	-	
	투명성	-	.763	-	-	
	정보제공	-	.753	-	-	
사업신청조건	의견반영	-	.697	-	-	0.721
	구비서류	-	-	.821	-	
	이행조건	-	-	.804	-	
	신청절차	-	-	.743	-	
사업만족도	보조적절	-	-	-	.837	0.695
	보조만족	-	-	-	.798	
Eigen-value		3.803	2.401	1.464	1.272	-
분산설명(%)		29.255	18.467	11.259	9.788	-

3. 모형의 적합성 수용기준 및 평가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론변수(잠재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측정변수들이 충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모형의 추정에 앞서, 외생변수 혹은 내생변수와 측정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사전에 검증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를 막론하고 전체 예측변수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도 있으며,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를 각각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한편 확인적 요인분석은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 관측변수들이 특정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관계에 초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구조모형보다는 측정모형에 해당된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잠재변수와 측정변수간의 관계 및 잠재변수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으로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다른 점은 분석 전에 요인(잠재변수)의 수와 요인(잠재변수)과 그에 따른 항목(측정변수)들이 이미 지정된 상태에서 분석된다는 것이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적합도 지수를 검토해야 하는데, 모형이 주어진 경험적 자료에 적절한지 여부를 나타내는 적합도 지수는 다양하다. 그 중에 잔차평균자승이중근(RMR), 표준적합지수(NFI), 터커-루이스지수(TLI), 비교적합지수(CFI), 근사오차제곱평균제곱근(RMSEA) 등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지수들을 활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적합지수들에 대한 수용수준은 위의 [표 6] 모형의 적합성 평가기준 및 판단 같다[18].

분석결과 적합도 지수를 보면 CMIN/DF=1.764, CFI=0.906, TLI=0.873, NFI=0.813, IFI=0.910, RMSEA=0.083으로 TLI, NFI, RMSEA가 수용기준에 조금 부족하지만, 그의 다른 적합지수들은 양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모형의 수용기준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모형을 가설 검증에 활용하고자 한다.

표 6. 모형의 적합성 평가기준 및 판단

적합지수	수용기준	모형값	평가
- 카이스퀘어검정(CMIN/DF)	- 2 이하	- 1.764	- 적합
- 잔차평균자승이중근(RMR)	- 0.08 이하	- 0.065	- 적합
- 근사오차제곱평균제곱근(RMSEA)	- 0.08 이하	- 0.083	- 부적합
- 비교적합지수(CFI)	- 0.90이상	- 0.906	- 적합
- 터커-루이스지수(TLI)	- 0.90이상	- 0.873	- 부적합
- 표준적합지수(NFI)	- 0.90이상	- 0.813	- 부적합
- 증분적합지수(IFI)	- 0.90이상	- 0.910	- 적합
최종평가		적합	

4. 가설검증

연구모형 및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18.0을 활용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한 구조방정식 모형(SEM) 분석을 실시하여 외생변수간의

경로계수를 추정하였으며, 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정리한다.

4.1 외생변수의 가설 검증

외생변수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선정절차는 보조금 지원사업 만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비표준화 경로계수가 0.381(표준화계수 B=0.047, t=2.116)로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둘째, 사업신청조건은 보조금 지원사업 만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비표준화 경로계수가 -0.064(표준화계수 B=-0.008, t=-0.441)로 유의수준 0.05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기각되었다.

셋째, 사업선정절차는 보조금 지원사업 재신청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비표준화 경로계수가 0.898(표준화계수 B=0.657, t=4.496)로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넷째, 사업신청조건은 보조금 지원사업 재신청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비표준화 경로계수가 -0.413(표준화계수 B=-0.317, t=-2.67)로 유의수준 0.05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
의 영향이 아닌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기각되었다.

다섯째, 보조금 지원사업의 만족도는 보조금 지원사업 재신청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비표준화 경로계수 -0.004(표준화계수 B=-0.0026, t=-0.039)로 나타나 가설은 기각되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사업의 만족도는 보조금 지원사업 재신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만족도의 매개효과, 사업선정절차와 사업신청조건의 재신청에 미치는 간접효과 또한 유의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사업의 매개효과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선정 절차와 사업신청 만족도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직접효과만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표 7. 외생변수 가설 검증 결과

경로	경로계수		표준 오차	t (C.R.)	P값	가설 채택
	비표준	표준				
사업선정절차 → 만족도	0.381	0.047	0.18	2.116	0.034	채택
사업신청조건 → 만족도	-0.064	-0.008	0.145	-0.441	0.659	기각
만족도 → 재신청	-0.004	-0.026	0.115	-0.039	0.969	기각
사업선정절차 → 재신청	0.898	0.657	0.2	4.496	0.000	채택
사업신청조건 → 재신청	-0.413	-0.317	0.155	-2.67	0.008	기각

4.2 외생변수와 내생변수간의 가설 검증

외생변수와 내생변수 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생변수 사업선정절차와 내생변수 선정과정, 의견반영, 정보제공, 투명성, 신속집행 변수는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내생변수는 사업선정절차라는 외생변수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생변수 사업신청조건과 내생변수 신청절차, 구비서류, 이행조건 간의 관계는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내생변수는 외생변수 사업신청조건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생변수 만족도는 내생변수 보조금 규모의 적정성과 보조금 정책 만족도와 관계는 보조금 규모의 적정성은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조금 정책 만족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정책의 만족도는 보조금 지원정책 내용에 대한 만족도보다는 보조금 지원 규모가 보다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외생변수 재신청은 내생변수 소득에 기여, 보조금의 필요, 재신청의사의 관계는 보조금 규모의 적정성은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내생변수는 외생변수 사업신청조건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내생변수의 가설검증 결과

경로	경로계수		표준 오차	t (C.R.)	P값	가설 채택
	비표준	표준				
사업선정절차 → 선정과정	1	0.641	-	-	-	채택
사업선정절차 → 의견반영	1.502	0.797	0.238	6.302	0.000	채택
사업선정절차 → 정보제공	1.155	0.688	0.2	5.759	0.000	채택
사업선정절차 → 투명성	1.197	0.634	0.221	5.413	0.000	채택
사업선정절차 → 신속처리	0.687	0.426	0.18	3.828	0.000	채택
사업신청조건 → 신청절차	1	0.514	-	-	-	채택
사업신청조건 → 구비서류	1.559	0.954	0.351	4.438	0.000	채택
사업신청조건 → 이행조건	0.98	0.606	0.208	4.713	0.000	채택
만족도 → 보조 적절	1	5.229	-	-	-	채택
만족도 → 보조 만족	0.014	0.082	0.365	0.039	0.969	기각
재신청 → 소득 기여	1	0.872	-	-	-	채택
재신청 → 보조 필요	0.91	0.808	0.101	9.028	0.000	채택
재신청 → 신청 의사	0.862	0.744	0.104	8.319	0.000	채택

이상의 외생변수와 내생변수간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3] 가설검증 결과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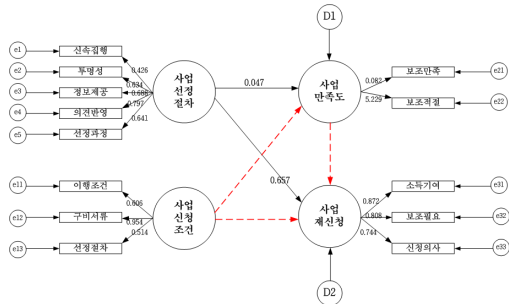


그림 3. 가설검증결과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의 양돈농가에 대한 농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투명성 등의 선정 절차, 구비서류 및 구비조건 등 사업신청조건에 대한 적정성이 보조금 지원정책의 만족도와 향후 재신청의

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 근거로 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금 지원사업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사업신청조건 완화보다는 사업선정절차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인한 소득증대 등의 효과로 보조금 지원사업 재신청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신청 조건 완화보다는 사업선정절차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서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절차에 대한 만족도 향상 노력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만족도 향상뿐만 아니라 재신청 효과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대적 영향력 크기에서도 사업선정절차 만족도는 보조금 지원사업 재신청에 더욱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정책 우선순위를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의견반영 등 사업선정절차 만족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보조금 지원사업 만족도는 보조금 지원사업 재신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사업의 만족도와 재신청 향상을 위해서는 사업신청 조건의 완화보다는 우선적으로 사업선정절차에 대해 농가에 정보를 제공하고, 농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분석결과를 간단히 말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보조금 지원정책의 소득증대 효과 등 재신청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선정에 대한 농가에 정보제공, 의견반영, 투명성 확보 등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연구대상 선정에 있어서 전국의 농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농가들 중에서도 농업보조금을 지원 받은 축산농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지역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에는 전국의 보다 많은 농업보조금 지원을 받은 농가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게다가 폭 넓은 연구를 위하여 변수와 요인을 보다 확대하여 진행해 볼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 문헌

[1] 강화순, 양돈농가의 MSY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및 제고방안,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 2010.

[2] 김중기, “우리나라 FTA추진과 농업부문 대응과제,” 응용경제, 제5권, 제2호, pp.111-126, 2003.

[3] 박성재, 박준기, 송주호, 채광석, 문한필, 농업보조금 개편 방안 연구: 쟁점 및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4] P. Norman and L. Smith,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exercise : an investigation into the role of prior behavior, behavioral and attitude variabil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25, No.4, pp.403-415, 1995.

[5] M. Fishbein and I. Ajzen,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 Addison-Wesely, 1975.

[6] Oran R. Young, *Compliance and Public Authority : A Theory with International Applications*, Baltimore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9.

[7] F. S. Coombs, “The Bases of Noncompliance with a Policy,” Policy Studies Journal, Vol.8, No.6, pp.885-892, 1980.

[8] J. E. Anderson, *Public Policy-making, 3rd ed*, NY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4.

[9] 이시원, 하상근, “정책대상집단의 불응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행정정보, 제36권, 제4호, pp.187-204, 2002.

[10] 정정길, 최종원, 이시원, 정준금,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6.

[11] 하상근, “정책대상집단의 불응요인에 관한 중단 연구: 국민연금 지역가입(대상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제14권, 제2호, pp.157-178, 2010.

[12] 강마야, “농업보조금 제도 개선방안,” 열린충남, 제62권, pp.54-63, 2013.

[13] 김용택, “농업보조금 사업의 경제적 효율성 분석 : 농기계(이앙기)사업 사례,” 농업경제연구, 제38권, 제1호, pp.93-97, 1997.

[14] 김태이, 임정빈, 안동환, “공적보조금이 지역내 지역간 농가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농촌경제연구, 제53권, 제1호, pp.41-61, 2012.

[15] 한원구, 박종섭, “농업보조금 정책의 평가모형 분석 : 화훼 생산·유통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정책연구, 제18권, 제1호, pp.1-26, 2007.

[16] R. V. Krejcie and D. W. Morgan, “Determining sample size for research activiti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30, pp.607-610, 1970.

[17] 송지준, *SPSS/AMOS 통계분석방법*, 21세기사, 2012.

[18] 배병렬, *Amos 17.0 구조방정식모델링(원리와 실제)*, 청람, 2009.

저 자 소 개

고 권 진(Gweon-Jin Ko)

정회원



- 2015년 6월 :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석사)
- 현재 : 동아축산 대표

<관심분야> : 도시 및 지방행정, 영농행정

김 경 범(Kyung-Bum Kim)

정회원



- 2012년 2월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 2009년 9월 ~ 현재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 2013년 2월 ~ 현재 :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관심분야> : 교통행정, 계량행정, 도시 및 지방행정, 지방자치